

마을의 미래를 그려가는 주민공동체
하추리 산촌마을

6·25 전쟁의 상흔과 가난을 겪었던 인제군 하추리 산촌마을은 2006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계기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금 5억 원을 개인 배당 대신 **마을 공동부지 매입**에 전액 투자하고, 법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화전민 시절부터 재배해 온 잡곡을 최신 도정공장 유치를 통해 '**도리깨잡곡**'**으로 브랜드화**하고, 농협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타작 퍼포먼스와 전통놀이가 어우러진 '**도리깨축제**'를 개최하여 잊혀가는 농경문화를 알리고 주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추리는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마을 특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패키지를 구축했습니다.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쉼터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카페 하추리'**를 오픈해 마을 최고의 수익원이자 사랑방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나아가 1인 1실 숙소와 건강한 산골 밥상, '자발적 고립'을 콘셉트로 한 **'혼자하는 산촌여행'**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단체 관광 중심에서 **개인 맞춤형 체류 여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수익금 대부분을 **마을 복지 기금**으로 적립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 하추리산촌마을은, 주민들의 자부심과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농촌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